

학교교육과 대안교육에 대한 통일교적 이해

이 재 일
선문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학교교육의 문제와 그 근원인 근대교육을 살펴보고 통일교의 교육론에 근거하여 통일교적 대안교육의 방향을 찾아본 것이다.

학교교육의 문제는 출세지향적 교육열, 서열주의 교육체계, 입시위주의 성적경쟁교육, 사교육시장의 확대 등이다. 문제의 근원인 근대교육은 합리적 인간관, 과학적 세계관, 실용주의적 가치관, 공교육제도를 특징으로 한다. 근대의 공교육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켰으나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학교는 한국에서 폭력과 청소년 자살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학교교육의 혁신이 시급하다. 교사와 학생이 행복하게 어울릴 수 있고 학생의 삶에 질적 향상이 일어나도록 이끌어가는 학교로 정상화되어야 한다. 대안교육은 학교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을 실천하고자 나타났다.

통일교의 교육론은 교육이념과 교육형태 및 이상적 인간상으로 설명된다. 이에 근거하여 통일교적 대안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정교육의 갱신, 순결한 사랑과 가치의 교육,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의 균형을 이루는 교육, 교육과 종교의 관계 재정립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반 위에서 서열주의 교육체계와 입시위주의 성적 경쟁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사회에 서열주의 교육체계를 타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학교 개혁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핵심 주제어: 대안교육, 근대교육, 학교교육, 통일교 교육론, 균형교육

I. 서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의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특히 학교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음 편히 생활하지 못하여 폭력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학부모는 자녀들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그들의 학업에 개입하고 있다. 사교육이 확대되어 학교가 학원에 교육 주도권을 넘겨주는 실정이다. 교육학자들이 한국의 교육을 망쳐놓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역대 정부가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문제는 점점 더 꼬이는 형국이다. 결국 지금까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허사였고 문제 해결 방향이 엇나간 것이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오죽하면 치맛바람, 입시지옥, 교실붕괴, 학교폭력 등 학교교육 문제를 지적하는 속어들이 횡행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과 부모는 세 방향으로 나아간다. 대다수는 체념하고 현재의 학교교육체제에 순응한다. 일부는 해외 유학으로 입시지옥을 탈출하고자 한다. 또 다른 일부는 새로운 교육을 지향하는데, 이들은 대안교육을 해결의 방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의 학교교육 제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교육을 모색하는 대안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립 대안학교가 공교육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의 대안성도 제시하는지... 만약 종립 대안학교 측의 종교교육이 일반학교의 경우보다 ‘대안적’이라면, 그 대안성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문제의식들을 토대로 한국의 종립 대안학교와 종립학교 그리고 일반 학교들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취해야 할 종교교육과 대안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¹⁾

이번 학술대회는 근대적인 공교육과 학교체제에 대한 문제의식, 종교교육, 대안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안이라는 낱말은 기존의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타난다. 대안교육은 기존의 학교교육을 문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를 향한 성적경쟁, 서열화, 권위주의, 주지주의 교육, 인권 경시 등이 문제가 된다. 학교교육이 학생의 인간성을 피폐하게 하므로, 오늘의 학교교육은 비인간화 교육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문제는 어디에서 기원한 것인가? 학교교육이 지닌 문제의 기원은 ‘근대주의에 기반을 둔 근대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류 역사가 전근대 사회로부터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근대교육을 형성했는데, 결국 근대교육이 근거하고 있는 근대주의(modernism)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대교육의 문제는 근대주의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1)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초청장(2012. 11. 16), http://www.kasre.or.kr/sub_2_3.php?ptype=view&idx=137352

학교교육과 근대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대안교육은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학습권을 중시한다. 협동과 체험을 통해 배워가는 교육을 지향한다. 한국에는 다양한 대안학교들이 특색 있게 운영되지만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울리는 공동체를 이상으로 삼는다. 학교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대안교육은 새로운 교육을 위한 가능성을 열었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초보적 수준에 있다. 이러한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생태적 위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개별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요청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²⁾

통일교는 과거에 전국적으로 “향토학교”를 설립하여 청소년과 주부를 대상으로 중등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³⁾ 현재에는 통일교 계열 학교법인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제도권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필자는 통일교 대안교육의 현실보다 이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먼저 중등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그 원인으로서의 근대교육을 살펴보고 한국의 근대교육 형성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통일교의 교육론을 개관하고 그 터전에서 통일교의 대안교육에 대한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학교교육의 진단

1. 한국의 학교교육

역사적으로 학교는 관조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자유로운 교육장이었다. 근대의 계몽기에 는 여기에 실용적인 목적이 첨가되었다. 학교가 자유교육전통과 실용교육전통의 이중성을 지니게 되었다. 19 세기 후반에 학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위주로 하여 가르쳤고, 그 지식은 보편적 지식으로 인식되었으며, 학교는 주지주의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시민 모두 배울 권리를 얻게 되면서 학교는 초등·중등·고등 교육과정으로 나뉘고, 학년과 학급으로 구분되었다. 학교를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지위를 얻게 되고, 학교가 졸업증서를 주면서 학력주의가 나타났다. 근대의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인력 양성과 국민적 일체감 형성을 위한 국민교육론이 대두되고, 학년제, 학령, 교육과정, 교수법, 학생관리, 교사양성을 규정한 공교육 제도가 형성되었다. 이로써 근대학교의 특징인 주지주의, 학력주의, 공교육 형태가 정형화된 것이다.⁴⁾

그 연장선에 있는 한국의 학교는 학생들을 억압하고 숨 막히게 하는 질곡의 구조물이 되고 있다. 다음의 노랫말을 살펴보자.

2) 이종태, 『대안교육 이해하기』(서울: 민들레, 2007), 231-249쪽.

3) 향토학교본부, 『향토학교 10년의 발자취』(서울: 향토학교본부, 1995).

4) 이종태, 위의 책, 62-66쪽.

매일 아침 일곱 시 삼십 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구백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막힌 콧 막힌 사방이 막힌, 널 그리곤 우릴 덩석 모두를 먹어 삼킨
이 시커먼 교실에서만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며 고등학교를 지나 우릴 포장센터로 넘겨
겉보기 좋은 널 만들기 위해 우릴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 버리지...
좀 더 비싼 너로 만들어 주겠어.
네 옆에 앉아 있는 그 애보다 더 하나씩 머리를 밝고 올라서도록 해.
좀 더 잘난 네가 될 수가 있어.

-교실 이데아-

1994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한국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당시 청소년들은 신선한 자극을 받았고 공감했으며 열광했다. 하지만 그 때로부터 20여 년이 되는 지금도 교실은 여전히 학생에게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꽉 막혀있으며,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 버리”기 위해 “옆에 앉아 있는 그 애”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라고 재촉한다.

한국 교육의 실태는 특이하다. 높은 취학률과 낮은 중도 탈락률(중 1.1%, 고 2.7%)에, 고교 졸업자의 82%가 대학에 진학한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가 주관하여 2003년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TIMMS)에서 한국학생은 수학 2위와 과학 3위를 차지했다. 2003년 만 15세 대상 OECD 주관 학업성취도 국제비교평가(PISA)에서 한국 학생은 문제 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인데 반해 흥미도 31위이고 자신감 39위였다.⁵⁾ 2011년 TIMMS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초등 4년생은 수학 2위와 과학 1위를 차지했고, 중학 2년생은 수학 1위와 과학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초등 4년의 수학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⁶⁾

한국인의 교육열은 공부 잘하여 남보다 앞서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성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무분별한 결과주의를 낳는다.⁷⁾ 대다수 부모에게 출세란 경쟁에서 살아남아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이다. 잘못된 교육열에 부응하여, 학교가 경쟁을 조장하고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입시위주의 성적경쟁으로 학생을 내모는 중등학교 교육은 학생을 타자로 내몰아 학교 폭력과 청소년 자살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학교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축소, 객관식 시험 폐지,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 개발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지만 효과는 알 수 없다. 학교 폭력과 청소년 자살이라는 비극을 막기 위해 상담교사 배

5) 이종태, 위의 책, 17-20쪽.

6) 〈한국 초등생 과학 1위 · 수학 2위 … 자신감은 꼴찌〉, 《한겨레》, 2012년 12월 12일자, 제14면.

7) <우리의 교육열은 건강한가?>, 《세계일보》, 2012년 10월 29일자, 제31면.

치, 인성교육 강화, 입시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편 등이 거론되지만 이러한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학교를 매개로 하여 학생을 경쟁으로 내모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더 큰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서열주의 교육체계를 제일요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 경쟁지상주의 교육에 내몰려본 한국인... 서열주의 교육체계를 당연시하고 선진국의 보편적 교육체계를 무시한다... 집안 좋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 입학을 휩쓰는 게 현실이고... 국회의원 44%가 단일 대학 학맥으로 연결되는 '이상한 나라'에 우리는 산다... 행정부나 대기업도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00대 출신이 과점 상태에 있다.

시험 한 번의 결과로 신분질서가 형성되고 고졸자는 대졸이자가까지 높아지니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무색하다. 이런 현실은 더 지독한 학벌주의의 온상이 될 뿐 아니라 자살 학생이 속출할 정도로 초·중등교육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계 빈곤을 가속화한다. 또 지방대학을 고사시켜 지역불균형을 심화하고...⁸⁾

소수의 명문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서열주의 교육체계가 학벌주의의 온상이 되고, 초·중등교육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과 불평등구조의 심화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열주의 교육체계가 타파되지 않는 한 중등학교는 성적경쟁의 소용돌이를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중등학교에서 대학입시를 향한 성적경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중등교육 개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허사가 되고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 문제는 악화될 것이다.

2. 근대주의에 기초한 탈종교적 교육

근대주의는 근대의 사상과 특성 및 실천을 의미한다. 또한 이전의 전통과 권위에서 벗어나, 근대의 과학이나 문화에 근거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말한다. 근대사회는 이성적 인간관과 기계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다. 또한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진보와 발전을 향한 역사를 인정한다. 인류는 근대에 들어서서 민주주의적 정치와 자본주의적 경제가 어우러진 사회를 이루어왔다.

근대주의의 특성은 대체로 합리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전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이성에 근거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하려는 태도인 합리주의는 감정적 행동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처신하려 하지만, 이성을 넘어선 종교적 영역을 배격한다. 인간과 현실 세상을 중시하는 태도인 세속주의는 신과 내세를 중시하던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문화적 성취와 자기실현에 관심을 가지나, 초월적인 세계를 도외시하고 반종교적 성향을 띤다.

8) 〈교육문제 안 풀리는 이유 언론에 있다〉, 《한겨레》, 2012년 7월 25일자, 제29면.

인간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물질주의는 사회를 경제에 종속시키고 도덕보다 물질을 앞세운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결합되어 나타난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인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로 전락했다. 개인이 타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여기는 개인주의는 인간의 정체성을 자의식에서 찾고 어떠한 권위나 구속을 거부한다. 하지만 자유를 강조하여 이웃과 동료로부터 떨어져 외로움에 처하기 쉽다. 전문화란 사회의 분리화와 파편화 현상을 포괄한다. 근대에 주요 생활영역인 정치, 예술, 학문, 교육 등이 분화했고, 종교로부터도 분리되었다. 각 영역이 독립했지만 상호연관성을 상실하여 조각으로만 남았고 전문화의 길로 나아갔지만 통전성을 상실했다.⁹⁾

한편, 근대인들은 종교를 사적인 것으로 보고 공적 삶의 현장에서 배제하였다. 그러한 관점은 20C 초에 정교분리로 법제화되었고, 학교교육과 종교의 분리로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제도가 형성되면서 공립학교의 종교적 중립성을 분명히 하였다.¹⁰⁾

이러한 근대주의에 바탕을 두고 근대교육이 형성되었다. 근대교육의 기본 가정은 합리적 인간관, 과학적 세계관, 실용주의적 가치관, 국가주도의 공교육제도이다. 근대에는 신분해방으로 보편교육이 가능해지고 실용주의적 교육이 강조되면서 민족국가로의 통합을 위해 공교육 제도가 형성되었다.¹¹⁾ 근대교육의 대표적인 특성은 공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대의 공교육제도를 국민교육제도라고도 한다. 국가가 주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은 최소한의 비용이나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대의 공교육제도는 국민 전체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적 권리를 신장시켜왔으나,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3. 한국 근대교육의 형성과정

한국의 근대교육은 개화기에 서양 문물의 유입과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제도화의 길로 들어섰다. 당시의 조선사회는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면서 근대사회로 나아가야 했다. 실용적 교육이 구국의 희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새롭게 설립되는 신식학교는 덕성보다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였다. 신식학교는 전통적 가치와 무관한 실용적 지식과 기술을 강조했다. 이로서 유교적 인문주의 전통이 단절되어 근대교육에서 규범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¹²⁾

9) D. R. Griffin, ed. *Spirituality and Societ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8, pp.3-13; 이재일,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9(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6), 122-124쪽.

10) 이재일, 앞의 글, 122-124쪽.

11) 이종태, 앞의 책, 101-107쪽.

12) 정순우, 「교육의 비인간화 현상과 그 사적 전개과정」, 『한국의 교육과 윤리』 6집(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참조.

근대교육은 사회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위한 실용적 목표를 지향했다. 실용적 지식과 기술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추진되면서, 근대교육은 인격형성이라는 교육적 본질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래서 한국의 근현대 교육은 학습자의 인격을 기르는 데에서 실패했다고 평가된다. 오늘의 한국 교육에서 인간이 수단으로 취급되는 현상은 근대교육의 형성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개화기의 근대교육이 실용교육으로 변화했던 데에는 당시의 종교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며 가치체계의 근거인 종교는 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인간상의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¹³⁾ 그런데 개화기에는 종교적 상황도 급변하고 있었다. 유교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유교에 기반을 둔 전통적 가치관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서양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주장되었고, 결국에는 정치적 배려로 국가와 종교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사회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교육과 종교도 분리되어 갔다.¹⁴⁾

오늘날 교육에 대한 이해는 매우 혼란스럽다. 그 원인은 학교가 국가발전과 입시를 위한 수단이 되면서 이러한 학교교육 경험을 교육이라고 오해하였고 교육학이 교사양성을 위한 학문에 기울어졌기 때문이다.¹⁵⁾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에는 구국을 위한 교육을 강조했고, 해방 이후에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와 함께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하였다. 교육의 개념을 교육의 본질에서 찾지 않고 교육의 기능에서 규정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다.

Ⅲ. 통일교의 교육론과 대안교육의 방향

종교란 본래 초월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의 것을 넘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이다. 종교의 가르침은 그 자체가 대안적 특성을 담고 있다. 통일교의 교육론도 대안적 특성을 지닌다. 통일교의 교육론을 개관하고 그 대안교육적 방향을 찾아본다.

1. 통일교의 교육론

먼저 통일교 교육론의 근거가 되는 통일교의 근본 사상을 인간관, 사회관, 교육관으로 나누어 요약하고, 그 후 통일교 교육론의 핵심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¹⁶⁾

13)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편, 『1945년 이후 한국종교의 성찰과 전망』(서울: 민족문화사, 1998), 14-16쪽.

14) 이재일, 『유길준의 종교관 변화과정과 교육개혁론』(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2-4쪽.

15) 장상호, 『학문과 교육』[상](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170-186, 693-701쪽.

첫째, 통일교의 인간관은 하나님과 인간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한다. 미완성 상태로 태어나는 인간은 3대축복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한다. 3대축복 완성은 인간이 지상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심정적 일체를 이루고,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만물을 올바르게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로 성장해야 함을 뜻한다. 즉, 인간의 삶이 영과 육을 아우르는 성장과 수행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였다. 타락한 인간은 죄악을 청산하는 복귀의 길과 성장하기 위해 가야했던 원리의 길을 거처야 한다.

둘째, 통일교는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으로서의 사회란 영계와 육계를 아우르는 천주(天宙)라고 본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목적이 실현된 사회이어야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타락으로 나타난 죄악의 사회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한 인류 대가족 사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음이 교류되는 심정문화의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살며 어울리는 공생공영공의주의의 사회를 지향한다. 하지만 현실은 죄악의 사회이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책임을 완수하여 지상과 천상에 천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셋째, 통일교는 교육이란 인간의 존재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한다. 즉, 인간이 성장하고 완성하도록 돕는 과정이 교육이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였기에 타락성을 청산하는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교육은 구원의 보충적 기능이기도 하다.¹⁷⁾ 하나님의 섭리는 타락성 청산과 본성의 완성이라는 두 목표를 지향하여 나아가므로 통일교 교육은 타락한 인간이 사탄분립노정을 출발할 때부터 창조목적을 완성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관계된다. 이러한 면에서 교육은 복귀의 길과 원리의 길을 거치는 과정을 안내하는 것이 된다.

더불어 통일교는 일상의 삶이 곧 신앙생활이며 배움과 교육의 활동이라고 보고, 또한 각자 주체적으로 자신의 성장에 힘쓰는 수양의 생활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교육은 본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태어나 부모의 슬하에서 양육되면서 첫 번째 교육인 가정교육이 시작되고,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두 번째 교육인 학교교육이 시작된다.

통일교 교육론의 핵심은 교육이념과 교육형태 및 이상적 인간상 그리고 교육의 보편성과 개별성 및 균형교육으로 서술된다.¹⁸⁾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교는 교육을 인간이 3대 축복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닮도록 이끄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1축복은 인간이 심정을 중시하고 생심과 육심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다. 제2축복은 인간이 천리법도를 따르며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제3축복은 인간이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러한 3대축복의 교육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심정교육, 규범교육, 주관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를 교육의 3 형태라고 한다.

1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서울: 성화출판사, 1995) 참조.

17) 이재영, 「통일교의 육망이해와 육망 다스림」, 『종교교육학연구』 31(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46쪽.

18)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서울: 통일사상연구원 출판부, 1994), 346-371쪽; 이재일, 「통일교의 교육론과 아동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0(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50-59쪽.

심정교육은 하나님과 인간의 심정적 일치를 위한 교육이다. 규범교육은 인간이 자녀를 낳아 기르고 천도에 따라 살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주관교육은 주관의 대상인 만물에 대한 지식과 그 대상을 다루는데 필요한 기술 및 주관의 주체인 인간의 몸체에 대한 교육이다.

3대 교육이념에 따른 교육의 3형태를 통하여 양성하려는 이상적 인간상은 인격자, 선민(善民), 천재이다. 인격자란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의 심정이 하늘의 심정과 일치된 존재이다. 선민이란 천리법도 곧,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한 선한 사람이다. 인격자이자 선민인 사람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타인과 사정이 통하여,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는 사람이다. 천재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기에 보편교육이라고 한다. 주관교육은 개인의 소질과 취향에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므로 개별교육이라고 한다. 교육의 3형태는 이해의 편의상 구별하여 설명한 것이지만 각기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으면서 병행되어야 하고, 보편교육의 터전에서 개별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양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 통일교 대안교육의 방향

1)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한국의 학교와 학교교육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였고 제자리를 이탈했다. 그래서 학교교육의 혁신이 시급하다. 대안교육은 학교제도의 ‘안’과 ‘결’ 및 ‘밖’에서 새로운 교육을 실천한다.¹⁹⁾ 학교란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지닌 교육적 공간을 말한다. 교육을 주로 하는 현장을 학교라고 한다면 제도권 안의 학교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의 교육현장도 ‘학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제도권 학교교육을 문제로 삼는 대안교육은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학교라는 교육의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가르침과 배움 활동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학교는 학생의 성장을 목표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보람과 즐거움이 따르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혼란스러운 이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적 이해가 혼란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의 교육법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1949년에 제정한 교육법 제1조와 이를 수정하여 1998년에 제정한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교육이념이라는 제목으로 교육목적을 서술하여 혼란스럽다. 그리고 교육이념인 홍익인간과 교육목적의 하나로 서술된 인격 완성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으며, 그 외의 요소들도 서로 정합적으로 엮이지 못하여 그 뜻이

19) 강대중,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서울: 박영출판사, 2005), 39-41쪽.

모호하다.²⁰⁾

우리나라 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이라는 인간 활동은 무엇이고 교육은 우리 사회의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가? 이는 교육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제한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 초점을 두어야 교육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흔히 우리는 교육의 기능에 주목하기 쉬우나, 교육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이해로는 교육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오늘날 사회과학적 연구를 근거로 학습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교육의 효용성을 제고하려는 경험주의 교육학이 그러하다. 이는 교육에 대한 기능적 이해로서 교육의 목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되는 인간학이 생략된 이론이다.²¹⁾ 교육 행동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기능적 이해는 교육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려는 우리를 오히려 혼란에 빠뜨린다.

교육에 대한 본질적 이해란 교육행동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그 행동을 구성하는 하위 행동 및 그 행동의 내재적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²²⁾ 교육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을 변형시켜 나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주체적으로 실현시키고 확인하는 실천의 구조를 가진 자율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다.²³⁾ 교육은 더 높은 수준의 인간을 지향한 배움과 가르침의 행위 과정이다. 배움이란 교육자의 가르침에 따른 학습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주체적 자기 변혁을 위한 모든 노력이다. 가르침도 학습자의 의식을 깨우치려는 교육자의 모든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이란 인간 삶의 한 부문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본질에 대한 탐구에는 인간과 인간 현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인간의 삶은 무엇보다도 인간성의 구현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간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현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교육으로 인간다움을 구현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본질상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존재... 그 생산... 가운데 가장 특수하고 중요한 부분은 인간성 자체... 인간은 ‘아직 그 본질이 결정되지 않는 동물’... 무엇이 될 것인지는 항상 시간적으로 유예되면서 인간 스스로의 실천적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험한다. 즉, 인간의 자기 이해는 생래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의 소산... 자신의 인간성을 스스로 ‘소외되지 않는 방식으로’ 창조해 나가야... 이점이 우리가 모색하고자 하는 교육의 일차적인 특징이며 조건이다.²⁴⁾

20) 최봉영,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 대한 검토』, 『인격교육』 1권 1호(교양: 한국인격교육학회, 2007), 8-14쪽.

21) 정영근, 『교육학적 인격개념과 학교교육』, 『인격교육』 6권 1호(아산: 한국인격교육학회, 2012), 6-7쪽.

22) 엄태동, 『교육의 본질과 교육학』(서울: 학지사, 2006), 43, 55-56쪽

23) 장상호, 앞의 책, 85쪽.

24) 위의 책, 84-85쪽.

인간은 본질이 결정되지 않은 채 인간성을 창조해가는 존재이다. 통일교는 이를 창조성으로 표현한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성장하고 자신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해야 한다.²⁵⁾ 인간의 자기 창조란 곧 사람다움을 형성하는 것인데, 여기서 자기 창조가 곧 교육행위이다.

교육에 대한 기능적 이해는 자아실현, 인재양성, 문화의 계승과 발전, 사회혁신, 국가발전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된다. 특히 근대 공교육제도에서 학교는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요구되었다. 오늘날에도 국가라는 전체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는 국가의 인력수급정책을 도구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정치와 경제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왔다. 한국의 학교교육이 여러 가지 일탈현상을 보이는 것은 교육에 대한 기능적 이해와 교육학이 교직학으로 경도된 것에도 영향이 있지만 정치와 경제에 휘둘러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의 교육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교육의 본질적 이해와 기능적 이해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교육을 포함하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교육을 지배하는 서열주의 교육체계와 입시위주의 성적경쟁교육의 심각성을 국민이 공감해야 교육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2) 가정교육의 중시

인간이 남녀 관계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은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 가정이 인간 삶의 기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 양육하며 성인으로 길러간다. 가정은 그 구성원에게 여러 기능을 한다. 즉 가정에는 고유기능인 성·애정·생식·양육의 기능이 있고, 기초기능인 생산과 소비의 기능이 있으며, 부차적 기능인 교육·보호·휴식·오락·종교의 기능이 있다.²⁶⁾

통일교는 가정교육에 교육의 원형이 있다고 본다. 인간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을 체험하며 성장해야 완성될 수 있다.²⁷⁾ 통일교의 교육론은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에 주목한다. 부모의 사랑과 정성이 아기를 사람답게 기르는 원동력이고, 임신과 출산 및 육아의 과정은 모성이 발휘되는 최고의 교육이다. 그런데 갓난아기까지 보육기관에 맡기고 엄마를 직장으로 보내는 현실에서 가정교육이 차지할 자리가 없다.

가정교육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정서적 기초를 닦

25)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앞의 책, 59-60쪽.

26) 김주수·이희배, 『가족관계학』(서울: 학연사, 1986), 43쪽.

27)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앞의 책, 45-49, 53쪽;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798-799쪽.

고 사랑과 배려 및 공동체적 체험을 하면서 성숙한다. 반면에 학교에서는 객관적 지식과 합리성을 위주로 하여 배운다. 인간의 성장을 위해 가정은 학교와 사회의 연관 속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학교는 가정과 사회의 연관 속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늘의 학교교육이 지니는 문제를 극복하려는 대안교육은 이러한 교육의 연관관계를 감안하면서 그 미래적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순결한 사랑과 가치의 교육

통일교는 인류문제의 근본 원인을 사랑의 오용으로 본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문명이나 역사도 역시 불륜과 죄악이 가득한 역사요 문명이다. 음란함으로 타락한 인류는 순결로 복귀되어야 한다.²⁸⁾

순결은 미혼 남녀의 동정 또는 미혼과 기혼을 막론하고 지켜야 할 성적 정절을 뜻한다. 나아가 순결은 남녀 모두에게 그리고 결혼 전이나 후에나 항상 해당되는 것이고 성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 나아가 삶의 태도에서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다. 통일교는 순결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하고 실현하여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이해한다. 또한 순결한 사랑이 인간다움을 표현하는 핵심적 가치의 하나라고 본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 결과 인간의 생활이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흐르기도 한다. 성적 방종과 일탈 및 성윤리의 혼란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순진한 사랑이 쉽게 성적 욕망에 지배되는 현실이다. 에리히 프롬이 주장한 바와 같이 사랑은 예술, 건축, 의학, 공학처럼 지식과 노력이 요구되는 기술이다. 또한 사랑은 능동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서 주는 것이며 보호와 책임과 존경 및 지식을 내포한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²⁹⁾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이를 도외시해왔고, 중등학교의 성교육도 미흡한 상태에 있다. 통일교는 순결한 사랑의 교육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순결한 성의 윤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오늘의 사회에는 다원적이고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함께 존립하면서 상충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사회라고 불린다. 또한 가치관의 혼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³⁰⁾ 하지만 다원적이고 다가치적인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관의 정립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가치관의 문제를 주관적인 것으로 여기고 소극적인 교육으로 나아갔다. 사랑과 성의 윤리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능과 충동을 따르기 쉽게 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본능을 제어하며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대안교육이 필요하다. 건전한 가치관과 성

28) 위의 책, 78-83, 246쪽.

29) Erich From, *The Art of Loving*, 황문수 역, 『사랑의 기술』(서울: 문예출판사, 1991), 7-12, 29-41쪽.

30) 고범서, 『가치관연구』(서울: 나남, 1993).

윤리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가치관의 교육은 인간의 행위 속에 내재한 도덕적 의미와 가치를 학습자가 파악하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이다. 학습자가 도덕적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학습자 자신의 직관이나 각성의 행위로서 이것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건이므로, 교사는 학습자를 간접적으로 도울 뿐이다.³¹⁾ 가치관과 윤리의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이뤄져야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교사들이 지식과 기술의 교육보다 가치관과 윤리의 교육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다.

4) 균형교육

통일교 교육론에 따르면 심정과 규범의 교육인 보편교육과 주관교육인 개별교육이 병행하여 실시되는 것이 균형교육이다. 이와 달리 지식과 기술에 편중된 교육은 불균형교육이다. 그 결과는 건전한 인간성 형성에 장애를 가져온다.³²⁾

인간성 함양 교육은 자유교육이나 교양교육 또는 일반교육으로 불린다. 특정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양성하는 교육은 전문교육이라고 한다. 서양에는 자유교육의 전통이 있다. 자유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교양을 쌓는 일이었다. 이러한 교양을 위한 활동은 자유교육 또는 교양교육으로 번역되는 liberal arts의 전통이 되었다.³³⁾ 동양의 유교문화권에서도 근대 이전에는 인간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중시되었다. 유교문화권에서 사대부는 심신의 수양에 집중하였다. 자신의 인간성을 갈고닦는 수기(修己)의 교육과 그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치인(治人)을 위한 교육은 사대부의 당연한 길로 인식되었다.

인간의 본능적 측면에 근거한 물질생활을 순화하고 도덕성을 촉발해온 것이 교양교육이다. 근대에 이러한 전통에 변화가 일어나 의식주의 생활을 위한 교육을 중시하게 되었다. 점차 교양교육보다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전히 양자의 균형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의 하나로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을 상정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³⁴⁾

하지만 한국의 중등학교는 입시를 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하였다. 교육과정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편성되었을지라도 학교교육이 서열화된 교육체계의 구조적 모순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입시위주의 성적 경쟁교육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직업교육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주로 하는 교육인 반면, 교양교육은 도덕과 인격의 형성을 위주로 한다. 도덕과 인격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교과로 대표적인 것은 중등학교

31) 이계학, 『가치관 교육이란 무엇인가』 1, 2, 3, 『교육개발』 85, 86, 87호, 한국교육개발원, 1993. 8. 10. & 1994. 1. 참조.

32)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369-370, 373쪽.

33) 서울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학대백과사전』(서울: 하우동설, 1998), 2216-224쪽의 “자유교육” 그리고 2224-2232쪽의 “자유교육”·“교양교육”·“일반교육” 참조.

34)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3쪽.

의 ‘도덕’과 ‘윤리’ 과목이다. 하지만 도덕과 인격의 형성은 전 교과와 학교생활 전체를 통해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³⁵⁾ 그런데 학교의 도덕과 윤리 과목조차 축소되는 분위기이다.

대안교육은 교양교육의 기반 위에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진로와 입시교육에 치중하는 현실에서 도덕과 인격의 형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도덕과 인격의 형성은 단순히 지식적 교육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사랑과 가치의 교육처럼,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러므로 교양교육은 지식과 함께 생활과 실천을 통한 체험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5) 교육과 종교의 관계 재정립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이다. 인간의 삶은 마음 생활과 몸 생활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통일교는 인간의 타락으로 초래된 내적 무지를 극복하는 방안이 종교이고 외적 무지를 극복하는 방안이 과학이라고 본다. 과거에 종교계는 정신 중심적 삶에 치중했고 과학계는 물질 중심적 삶을 강조했다. 현대인은 물질우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다. 영성 상실의 시대에 정신과 물질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일교는 인간이 양면의 무지에서 해방되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교와 과학이 조화되고 협동해야 한다고 본다.³⁶⁾

그런데 근대사회는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삼고, 이를 적용하여 학교에서 종교를 배제한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다. 그것은 종교의 분열, 인종주의·성차별주의·군대주의·식민주의를 참아온 긴 역사, 도덕문제에 대한 갈등, 정치화, 종교를 미신으로 비하하는 과학적 경험주의와 환원주의, 예언자적 목소리에 대한 거부, 종교적 직관과 감성의 무시 등이다.³⁷⁾ 정교분리와 학교교육에서 종교를 배제한 결과 현대사회에 영적인 위기를 초래했다.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은 교육이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함을 뜻한다. 이것은 교육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취한 조치이다. 미국의 교육법이 종교와 관련되어 따르는 세속주의,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인정하는 복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도 정교분리의 원칙 하에서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³⁸⁾ 정교분리를 명시한 한국의 교육법도 공립학교에서의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은 교육이 종교를 도외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인류의 삶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공적 생활과 공립학교 교육에서 종교적 측면을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정교분리 그리고

35) 박균섭, 『학교인성교육론 비판』, 『교육철학』 35집(대구: 한국교육철학회, 2008), 56-58쪽.

36) 『원리강론』, 4쪽.

37) P. Slattery, *Curriculum Development in The Postmodern Era*, New York: Gland Publishing, Inc., 1995, p.72.

38) 안기성, 『미국의 공교육 제도와 종교에 관한 일 고찰』, 『사대논집』 3(고려대학교 사범대학, 1978), 73쪽.

종교와 교육의 분리가 의도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교의 목적은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이것은 교육사상가들이 인격도야를 위하여 추구한 것이 곧 종교적 이상이었던 점에서 잘 드러난다. 종교는 교육에 이상을 보여줄 수 있고, 교육은 종교에 그 이상을 실현해 나아가는 과정과 방법을 구체화시켜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대안학교에서는 교육과 종교는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특정 종교의 전파나 교리교육이 아니라 종교성의 함양을 위한 교육과 교육적 가치 실현을 위한 종교를 향해 양자가 협력하는 방향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한국의 학교교육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의 교육문제는 근대 교육의 출발 시점부터 꼬인 문제가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서열주의 교육체계, 입시위주의 성적경쟁교육, 사교육시장의 확대 등으로 악화되어 갔다.

이러한 학교교육은 혁신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혁신은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육자와 학습자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혁신으로서 학습자의 삶에 질적 향상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안교육은 학교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시작되었다. 통일교 교육론은 오늘의 학교교육과 대안교육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정교육의 갱신, 순결한 사랑과 가치의 교육,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의 균형을 이루는 교육, 교육과 종교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학교교육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서열주의 교육체계에 따른 입시위주의 성적 경쟁이 심각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반 위에서 국민적 합의로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 서열주의 교육체계를 타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학교 개혁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학교교육 문제는 학교와 교육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영역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교육계와 국가사회의 전체 영역에서 논의하고 합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대중.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서울: 박영출판사. 2005.
- 고범서. 『가치관연구』. 서울: 나남. 1993.
-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교육문제 안 풀리는 이유 언론에 있다〉. 《한겨레》. 2012년 7월 25일자. 제29면.
- 김주수 · 이희배. 『가족관계학』. 서울: 학연사. 1986.
- 박균섭. 「학교 인성교육론 비판」. 『교육철학』 35집. 대구: 한국교육철학회. 2008.
- 서울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학대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1998.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5.
- 안기성. 「미국의 공교육 제도와 종교에 관한 일 고찰」. 『사대논집』 3.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1978.
- 엄태동. 『교육의 본질과 교육학』. 서울: 학지사. 2006.
- 〈우리의 교육열은 건강한가?〉. 《세계일보》. 2012년 10월 29일자. 제31면.
- 이계학. 「가치관 교육이란 무엇인가」 1, 2, 3, 『교육개발』 85, 86, 87호, 한국교육개발원.
1993. 8, 10, & 1994. 1.
- 이재영. 「통일교의 욕망이해와 욕망 다스림」. 『종교교육학연구』 31.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이재일. 「유길준의 종교관 변화과정과 교육개혁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3.
- _____. 「통일교의 교육론과 이동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0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_____. 「통일사상의 교육론에 입각한 교육의 사적 고찰」. 『통일사상연구논총』 15. 천안: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07.
- _____.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9.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6.
- 이종태. 『대안교육 이해하기』. 서울: 민들레. 2007.
- 장상호. 『학문과 교육』[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정순우. 「교육의 비인간화 현상과 그 사적 전개과정」. 『한국의 교육과 윤리』 6집. 성남: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97.
- 정영근. 「교육학적 인격개념과 학교교육」. 『인격교육』 6권 1호. 아산: 한국인격교육학회. 2012.
- 최봉영.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 대한 검토」. 『인격교육』 1권 1호. 고양: 한국인
격교육학회. 2007.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통일사상연구원 출판부. 1994.
-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초청장(2012. 11. 16). http://www.kasre.or.kr/sub_2_3.php?ptype=view&idx=137352
-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편. 『1945년 이후 한국종교의 성찰과 전망』. 서울: 민족문화사. 1998.
- 〈한국 초등생 과학 1위 · 수학 2위 … 자신감은 꼴찌〉. 《한겨레》. 2012년 12월 12일자. 제14면.
- From, Erich, *The Art of Loving*. 황문수 역. 『사랑의 기술』. 서울: 문예출판사. 1991.
- Griffin, D. R., ed. *Spirituality and Societ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8.
- Slattery, P., *Curriculum Development in The Postmodern Era*. New York: Gland
Publishing, Inc., 1995.

원고접수 : 2012년 11월 20일 / 1차 심사 : 12월 9일 / 게재승인일 : 12월 10일

연구자소개 : 이재일

- ① 전공 : 교육학 / 소속: 선문대학교 순결가정문화학과
 - ② 관심영역 : 종교교육, 인성교육, 개화기의 한국교육
 - ③ 주요논저 :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유길준의 종교관 변화과정과 교육개혁론」,
『통일종교교육개론』 등
 - ④ E-mail : leejaeil21@hanmail.net
-

Abstract

Toward an Understanding of School Education and Alternative Education in Unificationism

Lee, Jaeil

Sunmoon University

The first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the problem of school education and the root of the problem. The second purpose is to explore Unificationist insights to alternative education.

The main problems of school education are educational passions for success, rank-oriented educational system, school record-centered competition towards entrance examination, the expansion of preparatory school, etc. The problems have originated from modern education.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education are rational human view, scientific world view, pragmatistic value system, public education system. Today, it can be said that schools are a hotbeds of student violence and juvenile suicide, and schooling infringes on the right of the student. Schools have to be reformed in the direction where teachers and students can make harmony and students can promote their lives.

Alternative education appeared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 of school education. The essential point of Unificationist theory of education consist of three great ideals of education, three forms of education, and images of ideally-educated person. Unificationism suggests to alternative education as follows: the right understanding of education, the renewal of home education, the education of pure love and values, the valanced education of general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reformation of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 and religion.

First of all, on the basis of right understanding on education, we have to overcome the rank-oriented educational system, school record-centered competition for entrance examination. Without it, we can not succeed in over coming the other problems.

Key words : Alternative Education, Modern Education, School Education, Unificationist Theory of Education, Valanced Education